

나의 안에 거하라

■ 요한복음 15장 1~7절

■ 28장(통28), 368(통486)

■ 2018년 7월 8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5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며, 하나님은 농부 되십니다(1절a). 오늘 우리는 포도원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1~3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절). 예수님께서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2절a).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 같이 심으셨고, 백성들을 가지처럼 기르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들 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사5:5). 이와 같이 교회는 포도원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어주시고 성도는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단절 되면 생명이 끊어지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가중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2절b).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3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미 우리 영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한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육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써서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은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점점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은 **둘째, 세상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세상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깨끗해지기 바랍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은 **셋째,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이 자라고 육은 약해집니다. 육체의 소욕, 정욕, 쾌락이 약해져서 영이 자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 점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4~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4절).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영양분과 진액을 공급 받아서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생명의 교통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이 있을 때에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어 생명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당할 죄의 고통을 십자가를 통해 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아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4절a).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첫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적인 교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이 붙들려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5절). 열매는 그리스도의 속성이며, 형상입니다. 또 사랑이고, 의고, 거룩함이며, 진실과 화평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맺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6~7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6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진액과 수분이 있어서 잘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떨어져 있는 가지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잘 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메마르고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불사르는 고통가운데 임하고 마음이 곤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마음이 곤고해져서 육체도 병이 들게 됩니다. 가정도 평안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바로 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7절).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날마다 은혜를 공급 받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영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며, 포도원은 교회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방해되는 것과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영이 자라나 점점 깨끗해져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서 영적인 교통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깨끗해지는 방법을 3가지로 설명해 보세요(1~3절).
2.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4~5절).
3. 예수 안에 거하는 결과와 거하지 않는 결과를 설명해 보세요(6~7절).